2강 - 프랑스에서의 영화탄생과 미국 영화의 기원

영화는 자본주의시대의 예술

원래 미국영화는 뉴욕과 뉴저지에서 시작을 했어요. 동부에서 시작이 됐지요. 프랑스에서 뤼미에르 형제가 1895년에 시네마토그래프라는 영사기로 상영하기 훨씬 이전이죠.

이미 1891년 우리가 잘 아는 발명왕 에디슨이 촬영기 키네토그라프와 관람상자 키네토스코프를 발명했고 특허권을 획득했습니다. 조수 딕슨의 공이기도 합니다. 1894년 최초로 키네토스코프 전시관을 오픈했읍니다. '블랙마리아'라는 자신의 스튜디오 속에서 촬영을 한 많은 단편영화들이 상영되었고, 현재까지도 남아있죠.

에디슨은 뤼미에르 형제에 비해 몇 년 먼저 촬영기를 개발하여 촬영하고, 영사장치를 발명하여 상영했습니다. 에디슨의 영화는 키네토스코프란 영사장치에 의해 관객에게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영화를 들여다 보는 방식이므로, 대중영사라 할 수 없습니다. 대중 상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프랑스에 그 선제권을 뺏겼죠. 그리고 영화는 프랑스에서 탄생하자마자 5, 6년도 안 되는 시기에 급속도로 전세계에 파급 되었죠.

당시 조선에서도 최초의 대중유료 상영이 1901년, 1903년이라는 설들이 있어요, 심지어 조선에 최초로 외국영화가 들어온 가장 오래된 설은 1897년이라는 설도 있지요. 그것은 프랑스에서 최초로 대중 유료 상영이 시작된 1895년에서 불과 2년 밖에 지나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영화는 프랑스에서 최초로 상영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것의 큰 의미는 없어졌습니다.

영화탄생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합니다. 영화촬영기의 탄생을 영화의 탄생으로 볼 수 도 있읍니다. 영화제작을 영화탄생으로 볼 수 도 있읍니다. 영화상영을 영화탄생으로 볼 수 도 있습니다.

무엇을 영화의 탄생이라 불러야 할까요? 현재 어느 영화사책이든 공유하고 있는 영화탄생연도는 1895년입니다. 이 해는 프랑스의 뤼미에르 형제가 파리의 그랑 카페라는 곳에서 대중에게 영화를 상영한 해입니다.

바로 그 시점을 영화탄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보다 수년 전에 미국 에디슨이 만들어서 촬영하고 상영했던 영화들은 왜 영화의 탄생으로 볼 수 없는 것일까요?

발명의 역사는 이미 그 이전부터 있었고, 공개 유료 상영이 시작되고, 이제 대중영화 상영이 시작 되었죠. 시작되자마자 그 영화들은 전세계로 파급이 돼서 수입되어졌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극동 아시아의 조선에 까지도 불과 몇 년도 안 되는 사이에 파급이 되었을 정도니까, 영화는 다시 말해 형평한 유통 경로를 가졌었던 것이죠.

뤼미에르형제는 그랑 카페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대중들을 모아놓고 돈을 받아 스크린에 상

영하였습니다. 뤼미에르의 상영방식은 지금의 영화상영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에디슨의 영사방식은 혼자 화면을 들여다 보는 개인적인 상영의 형식입니다. 마치 스마트폰 혹은 컴퓨터로 보는 영화에 가깝습니다.

에디슨은 영화탄생에서 뒤졌지만, 오히려 지금 보면 에디슨의 발명은 스마트폰 시대의 확장 영화로서의 가치, 개인 매체로서의 영화를 시작하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말입니다.

따라서 영화의 탄생이란 촬영기나 영사기의 발명의 기원도 아니고 먼저 상영했다는 차이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관객을 모아 돈을 받고 상영한 최초의 활동을 첫 번째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화가 시장성을 갖기 시작한 해를 기점으로 한다는 것이겠지요. 영화가 상품으로 구매력을 갖는다는 점을 중시한 것입니다. 영화를 산업적 매체로 보고자 하고, 바로 그러한 역사를 기원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화는 자본주의 시대에 탄생한 산업적 매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과학적 발명품도 아니고 개인적 매체도 아닙니다. 대중이 공유하고 경제활동과 여가활동에 활용되는 자본주의 시대의 총아로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속성은 영화의 본질이기도 하면서 자본주의시대라는 사회적, 역사적 배경과 뗄레야 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지요.

사실주의와 표현주의의 미학적 기원

1895년에 영화가 탄생하면서 두 가지의 영화적 경향이 나타납니다. 프랑스에서 활동한 두 명의 중요한 영화인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뤼미에르 형제와 멜리에스입니다.

1895년에 영화가 탄생할 때 시네마토그라프(Cinématograph)라는 촬영기를 갖고 찍고, 영사까지 했던 인물이 뤼미에르 형제입니다. 그래서 영어 시네마토그라피(Cinematography)라는 말은 촬영이라는 뜻으로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촬영기를 발명 했고 촬영을 했고, 영사를 했고, 최초로 대중유료 영화 상영을 했던 뤼미에르형제를 기억 해야 합니다.

뤼미에르 형제는 <뤼미에르 공장에서 퇴근하는 노동자들>이라든지 또 대표작으로는 <열차의 도착>이 유명합니다. 그 당시에 입체영화도 아니지만 그 영화를 보고 열차가 정말로 자기 앞으로 돌진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런 영화들이 1910년대 이전의 영화들입니다.

이 영화들이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화들이고, 그것은 원씬 원커트(one scene one cut) 한 장면으로 되어 있는 영화들도 있읍니다. 그리고 굉장히 길이도 짧죠. 5~10분 정도가 표준이었지만, 더 짧은 것도 있었읍니다. 단편영화들이고 무성영화들이었읍니다. 소리도 없고 흑백이고 지금 현대영화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뤼미에르 형제의 영화들은 대단히 사실주의적인 영화들입니다. 지금 보면, 거의 다큐멘터리에 가깝습니다. 실제 다큐멘터리도 있었읍니다. 그래서 극영화라 하더라도 실제의 세팅을 연극적으로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읍니다. 길거리에서 그냥 찍었다든지, 집에서 찍거나 했읍니다. 포장하지 않은 그런 영화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뤼미에르형제는 사실주의 전통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와 당대의 인물인 죠르쥬 멜리에스(George Méliès)라는 영화제작자 겸 감독은 대단히 환상적인 영화들을 만들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달세계여행>이라는 것인데요. 그 영화를 한번 보시면, <달세계여행>은 우리가 유명한 장면을 기억할 수 있죠. 달은 사람의 얼굴처럼 되어있고 거기에 로켓이 달의 눈에 박히고 그리고 달이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환상적인 장면으로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달세계여행>은 이후에 최초의 SF영화로 정의되기도 하고요. 환상 영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멜리에스하고 뤼미에르 형제는 아주 공교롭게도 영화가 시작되는 그 시발점에 있어서 두 개의 아주 다른 경향을 보여줍니다. 영화의 사실주의와 환상적인 표현주의 영화라는 아주 극명한 대비를 보이는 미학적인 가지치기를 해나가는 원조가 되죠. 이후 영화는 이렇듯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물론 두 가지가 절충되기도 했고요. 사실주의와 환상주의가 결합이 되기도 하고, 극단적으로는 두 가지의 갈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영화 방향의 아버지이죠. 멜리에스는 환상영화, SF, 표현주의 영화의 아버지이고, 뤼미에르 형제는 사실주의 영화, 기록영화, 이러한 모든 사실주의 영화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영화의 기원

이 두 가지 방향이 아주 중요한데, 그 초기에 프랑스 영화와 더불어 미국영화도 역시 있었거든요. 미국 영화의 기원과 초창기에 대해 알아보죠. 이것은 이후 헐리우드가 성립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영화에서 멜리에스나 뤼미에르 형제와 같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열차강도>(1905)를 만든 에드윈 포터가 초창기 인물로 중요합니다. 이후 채플린, 그리피스 등이 중요하지만 그중 바로 미국 극영화의 아버지, 그리피스 (D. W. Griffith)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그리피스는 미국영화의 아버지이면서 장편 극영화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뤼미에르나 멜리에스가 단편영화를 많이 만들었던 데에 비해서, 본격적으로 장편 극영화의 시대로 들어가는 문호를 열었던 대표적인 감독이 바로 그리피스 감독입니다.

그리피스는 1915년에 <국가의 탄생 The Birth of a Nation> 그리고 <인톨러런스 Intolerance>(1916) '불관용'이라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관용하지 않는다', 혹은 '편협하다'라는 뜻의 <인톨러런스>는 서사극인데요. 그리고 <세계의 중심>, <꺾어진 꽃> 등이 적어도 1920년대 이전에 만들어졌던 그리피스 감독의 장편영화 입니다. 이 그리피스 감독의 영화는 장편 대하서사극인데요, 남북전쟁을 소재를 했다든지 고대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대사건들을 드라마로 표현하는 대단히 서사적인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단편에서 장편으로 넘어가면서 '영화문법'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전까지는 원씬 원커트, 즉 커트의 분할이 없습니다. 한 장면을 커트로 분할하지 않고 카메라가 고정된 채, 한 장면 한 장면을 한 커트로 처리해서 넘어가는 방식이었다면, 그리피스는 최초로 '클로즈 업'이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클로즈 업'을 사용하고 카메라도 움직이고, 이 커트들의 혹은 쇼트라고도 하는데, 이 쇼트들의 사이즈 변화를 가져온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피스가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크죠. 다시 말하면 지금 보더라도 그리피스의 영화는 현대영화의 형태와 가까운 형태를 갖게 됐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고 그에 따라서 영화문법도 바뀌고, 그리피스의 영화는 여러 가지로 높게 평가할 만한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리피스 감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봅시다. <국가의 탄생>이라는 영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화문법이 구축되는데 있어서 공헌한 영화죠. "씬의 개념에서 쇼트의 개념으로" 발전했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쇼트의 개념으로 발전됨으로 인해서 순서를 배열을 하는 "편집의 개념"이 비로소 성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커트가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서 뛰어난 묘사력을 구사할 수 있게 되니까 인물의 심리나 사건의 정황 묘사를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높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피스는 개인 감독으로서 정의할 때는 대단히 왜곡된 시선을 갖고 있는 감독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국가의 탄생>이라는 영화를 보면 인종 편견을 유감없이 드러냄으로 인해서 백인 우월주의를 드러내죠. 그래서 그 이후의 많은 학자들 관객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헐리우드 시스템의 구축

그 당시에 미국영화는 다양한 장르들이 나타나게 돼서 적어도 1910년대에는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제작자 토마스 인스의 공로와 기여로 인해서 헐리우드가 산업 체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산업체계를 시작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작과 배급과 상영을 장악하게 되는 메이저 영화사가 등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사를 통해서 3대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3대 시스템은 첫 번째는 스튜디오, 두 번째는 스타, 세 번째는 장르입니다. 스튜디오가 있고 그 스튜디오 안에서 촬영을 하게 되죠. 생산 공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타가 있어서 스타를 통해서 대중들로부터 인기몰이를 한다는 것이고요. 장르라는 것은 상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미디라든지 웨스턴-서부극. 또는 공포, 심리드라마, 사회극, 멜로드라마 등의 다양한 장르들이 유행하게 됩니다.

1910년대에 특히 가장 인기 있었던 장르는 코미디입니다. 코미디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찰리 채플린을 필두로 해서 맥 세네트라는 감독 겸 제작자가 그 당시를 풍미했던 우리가 기억해야될 만한 인물들입니다.

찰리 채플린의 영화를 보면 경찰한테 쫓기는, 쫓고 쫓기는 추격전 같은 것들이 상당히 당시에 단골 소재였고. 또 슬랩스틱 코미디라고 후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슬랩스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슬랩-때린다, '스틱으로 때린다'는 의미입니다. '스틱 때리기' 혹은 '파이 던지기 영화'라고도 합니다. 케이크 같은 것을 얼굴에다 묻힌다든지 던지고 맞춰서 얼굴을 크림 범벅으로 만든다든지... 케익도 던졌지만 파이를 많이 던졌죠.

그 당시는 무성영화 시기였기 때문에 주로 이런 몸짓을 가지고 하는 코미디들이죠. 그래서 몸짓을 가지고 익살을 부리는 코미디이기 때문에 이러한 슬랩스틱은 그 이후의 코미디들 하고 비교가 됩니다.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하기 때문에 대단히 저급하고 속물스러운 코미디로 분류됩니다. 그런 코미디가 그 당시에는 상당히 유행을 했고 채플린이 슬랩스틱 코미디 영화의 전형을 보여주죠.

그래서 다양한 장르 영화들이 시작이 됐고 그리피스의 대작 장편영화들이 상당히 유행하게 됐다고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헐리우드 영화가 본격적으로 성립을 하게 되는데요.

찰리 채플린은 아주 대중적인 인기를 받았던 연기자이면서 동시에 감독이기도 하고 제작자이기도 한데요. 찰리 채플린만 혼자 우뚝 솟아 서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 사람도 그 전의 많은 감독들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는 1905년부터 이미 코믹한 인물을 창조해냈던 프랑스의 막스 랭더, 그리고 채플린의 바로 전에 맥 세네트라는 인물이 키스턴 영화사를 설립을 했고요. 무성영화시기에 유행했던 그런 코미디를 후세에는 키스톤 (Keystone) 코미디라고 부르는데요. 채플린 영화에 많이 등장하는 경찰에 쫓고 쫓기는 추격전 코미디가 주로 키스톤 코미디입니다.

이러한 키스톤 코미디의 제작자이자 감독이 바로 맥 세네트라는 인물이죠. 이 맥 세네트와 막스 랭더, 이 두 사람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그것을 표현해낸 것이 바로 찰리 채플린입니다. 채플린의 우스꽝스러운 콧수염을 가진 거지 신사, 부랑자의 모습은 막스 랭더가 이미 만들어 놓은 인물형이고 쫓고 쫓기는 이야기 구조나 슬랩스틱의 코믹한 상황이라는 구조는 맥 세네트로부터 받은 영향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채플린에 의해 잘 소화돼서 무성영화시기에 본격적으로 미국 코미디가 아주 성공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외에도 채플린의 그늘 때문에 가려졌던 유명 코미디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버스터 키튼 (Buster Keaton)이 있고요, 해롤드 로이드 (Harold Lloyd), 해리 랭든 (Harry Langdon), 로렐 (Laurel)과 (하디 Hardy) 등이 있습니다. 로렐과 하디는 우리에게 '뚱뚱이와 홀쭉이' 콤비로 기억이 되어있죠. 이런 영화인들이 그 당시에 전성기를 구가했던 아주 유명한 코미디언들이죠.

헐리우드 산업구조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인물이나 작품보다도 산업형태로서의 헐리우드 입니다. 헐리우드가 비로소 구축이 된 시기입니다.

그런데 미국 영화가 중요한 것은 영화 자체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가장 산업적인 형태로 성장시킨 곳이 바로 미국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 '산업형태로서의 미국영화가 어떻게 성장했는가?'하는 초창기의 미국영화의 형태를 짚어 보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뉴욕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뉴욕에 극장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고 공연물, 연극들이 브로드웨이와 같은 예술의 도시에서 많이 발달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었던 에디슨이 바로 뉴욕주의 뉴저지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부에서 시작한 영화가 왜 시작된 지 5, 10년 후 서부 헐리우드로 이전하게 되었는지, 왜 캘리포니아로 이전을 하게 됐느냐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대량생산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뉴욕은 굉장히 땅이 좁고 기후적으로도 겨울에는 추웠습니다. 기후조건으로 좋지가 않았죠. 땅이 넓고 기후가 좋은 곳으로의 선망이 생긴 거죠. 겨울에도 따듯한 캘리포니아로 이전하게 돼서 거기서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큰 공장이 설립된거죠,

이것이 바로 스튜디오입니다. 큰 공장을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거대도시, 영화 도시가 설립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헐리우드죠. 지금은 뭐 간판만 남아있지만 처음 1910년대부터 적어도 1950년대까지 약 4, 50년가량은 그곳에서 정착했습니다. 헐리우드가 위치해 있는 캘리포니아 일대는 거의 영화인들이 먹여살리는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영화일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 헐리우드는 대량생산을 하는 그런 도시로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 대량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1910년대 20년대의 초창기 형태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마스 인스 (Thomas Ince)라는 인물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배우나 감독은 기억하지만, 이러한 제작자, 영화사 운영자를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산업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영화는 절대로 성립하지 못했을 산업입니다.

헐리우드는 한 마디로 얘기하면 오락영화를 꾸준히 생산해내는 표준생산 방식이다라고 정의하면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생산품을 내면 'KS'마크라는 것이 붙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미국도 영화를 하나의 상품으로 규정 합니다. '불량품이냐 정품이냐', 이것이 '잘 만든 것이냐 못 만든 것이냐'하는 기준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준을 만든 사람이 바로 토마스 인스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인스의 헐리우드적 표준 생산 방식이 시작"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초창기에 영화사를 설립해서 배우나 감독을 고용하고 많은 촬영 기사들, 엔지니어 등을 고용해서 영화를 제작합니다. 이미 돈 대는 사람, 팔러 다니는 사람, 극장 운영하는 사람, 이런 요소들이 분업화 했다는 것

입니다.

다시 말해 영화 제작자와 배급업자, 상영업자 혹은 극장업자겠죠. 이 세 개의 영역을 분업화하는 것을 시작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초창기에는 분업을 했으면서도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업자가 되어 팔러 다니고, 자신 소유의 극장에다가 붙여 상영을 하는 이러한 형태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메이저입니다. 이것이 메이저의 독과점시대입니다.

초기에는 메이저 시대였는데, 1917년에 와서 반트러스트 법(독과점 방지법)이 생기면서 국가가 그것을 못하게 했죠. 미국정부가 영화계에 독과점 방지법을 제정합니다. 이로 인해서 메이저 영화사들이 존속은 하되, 많은 군소 영화사들, 즉 독립영화사들을 끼고 하게 됩니다. 이런 마이너영화사들과 같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체제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와 메이저가 동시에 공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헐리우드가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본격적인 헐리우드 시대 개막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러한 흐름이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 당시에 대표적인 영화사들이 페이머스 플레이어스, 라스키즈 컷 프로덕션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라마운트, 유니버설, 골드윈픽처스, 폭스, 워너브라더스, 콜럼비아 영화사들이죠. 이 영화사들이 현재에도 거의 다 있어요. 페이머스 플레이어와 라스키즈만 사라졌죠.

그리고 나머지는 유니버설과 골드윈은 MGM으로 합병이 되었고요. 폭스도 20세기 폭스로 변경이 됐죠. 워너브라더스도 영화사에서 더 확대된 것으로 확장해가면서 워너 커뮤니케이션스 계열사가 되고, 워너브라더스픽처스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콜럼비아픽처스도 현재까지 다 존재합니다.

지금은 조금씩 명칭이 달라졌어요. 하지만 합병 인수를 거치면서도 현재까지도 그 명칭이 존속하고 내려오는 것은 단순히 재벌체제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미국은 1910년대 20년대 구축했던 대량 생산 체제 그리고 독과점 금지법 이후에 독립영화사들을 흡수하면서 독립영화사들과 공존하면서, 헐리우드를 계속 꾸려나가는 미국 영화 산업의 자생력, 자구력, 생명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산업적인 토대로서의 영화라는 것을 가장 중시하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격변이 있어도 미국 영화회사의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영화 산업적인 형태는 아주 유구한 역사적 전통을 갖고 현재까지도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귀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선진국의 경우 전세계 영화사의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그것입니다. 50년, 60년 이상을 상회하는 오랜 기간동안 영화회사들이 계속 유지 되어 오면서 발전되어가는 그런 전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가 대표적이고, 프랑스의 고몽, 파테는 아직도 있죠. 일본의 도호, 도에이도 아직 그래로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영화후진국 사례를 명확히 보여주죠. 1960년대에 유행했던 많은 영화사들은 지금 하나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새로 시작하는 시점에서 영화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영화사의 존속은 바로 자국 영화 산업의 성패를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회사의 소유자가 누구로 바뀌었느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회사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한국은 그런 점에서 산업기반이 없는 나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 영화사는 다 없어지고 1970년대에 새로 다 등록해서 시작을 했죠. 1980년대에 오면 또 다 없어집니다. 1980년대에 활발하게 영화를 많이 만들던 그런 영화사들도 또 1990년대가 되면 또 다 없어졌습니다.

미국의 1910년대, 1920년대 초반 영화사들이 유니버설, MGM, 폭스, 워너브라더스, 콜럼비아, 파라마운트인데 현재 다 존속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헐리우드 영화를 산업적인 측면에서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지금 헐리우드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영화사를 더 꼼꼼히 되짚어보고 또 반성할 부분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런 연구가 없으면서 헐리우드와 경쟁한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냥 구호일 뿐입니다. 실제로 헐리우드 영화 산업이라는 것은 대단한 자생력과 자체 생산력을 갖고 있는 체계화된 그런 산업형태죠.

초창기의 미국영화는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한 나라의 영화사를 탐구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헐리우드 영화사라는 것은 현재 시점에 있어서도 위력을 가진 영화사입니다. 헐리우드 영화사가 곧 미국영화사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봐야 할 영화사가 바로 그 미국영화사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미국 초창기 영화사를 살펴보았읍니다, 미국영화의 산업형태가 분업화되고 표준화된 형태로 구축되고, 그리고 삼대 시스템 - 스튜디오, 스타, 장르 시스템 - 을 잘 활용하고 분업화해서 발전시켜 나갔다는 점입니다. 현재까지도 강력하게 유지되는 미국영화산업의 독특한 점과 강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장르의 여러 장인들이 있습니다. 그리피스, 채플린, 맥 세네트, 등입니다. 서부극의 대가들은 192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지만, 일단 다양한 장르가 그 당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겠습니다.

초창기 미국영화사의 시작을 마무리를 합니다. 다음은 독일표현주의, 소비에트 몽타쥬 영화사조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조는 미리 개괄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10년대, 1920년대, 특히 1920년대에 전세계 영화사조 중에서 소련과 더불어서 양대산맥, 그리고 미국까지 하면 세 나라의 독특한 영화사조였습니다. 초창기 영화의 틀을 형성시켰던 굉장히 중요한 사조라는 의미에서 독일과 소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영화의 분석

토마스 에디슨
<키스>

브라이튼 스쿨
<로버에 의한 구출>

뤼미에르형제
<뤼미에르 공장에서 퇴근하는 노동자들>

<물뿌리는 정원사>

<열차의 도착>(1895)

죠르쥬 멜리에스
<달세계 여행>(1903)

에드윈 포터
<대열차강도>(1903)

데이빗 그리피스
<국가의 탄생>(1915)

챨리 채플린

버스터 키튼